



5일 제주도 구좌읍 월정항 방파제에 태풍 ‘크로반’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강희만기자

태풍 간접 영향에 강풍 피해 속출

4일 새벽부터 3일째 특보… 강풍 관련 신고 46건 접수
크레인 넘어져 2명 사상… 나무 전도되고 시설물 파손
기상청 “8일까지 강풍·풍랑 이어져… 안전 유의해야”

태풍 ‘크로반’의 간접영향으로 주말 제주에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강풍 관련 신고가 46건(제주시 24건, 서귀포시 22건)이 들어왔다. 구조·구급 3건, 안전조치 43건이다.

지난 4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높은 파도로 갯바위에 고립된 60대 남성 30대 남성 2명이 소방과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날 오후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제초 작업중 가림막과 충돌하는 사고로 작업자가 경상을 입었다. 또 서귀포시 법환동에서는 날리는 적치물에 부딪혀 경상을 입은 2명이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귀포시 강정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쳤고, 제주시 이도2동에서 중앙분리대가 넘어지거나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신호등에 설치된 과속카메라가 분리돼 아슬아슬하게 걸려있기도 했다. 또 제주시 연동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건물 외장재가 추락하거나 제주시 한림읍에서 바닷가 인근 펜스가 파손되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은 나무·가로수 18건, 교통시설물 12건, 건물·간판 6건, 전선·통신선 6건, 기타 1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소방의 강풍 관련 신고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오후 3시53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에서 크레인인 쓰러져 50대 작업자 2명이 깔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바지선 선주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크레인 기사 B씨는 골반과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외부에서 안전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B씨는 크레인을 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강풍으로 인해 크레인이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지난 4일 새벽부터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다. 현재 제주시북부와 대부분 지역(제주시 서부·추자도 제외)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제주도는 오는 8일 새벽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 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졌다. 제주 북부 앞바다는 7일 오전까지, 그 밖의 해상에는 8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1.5~4.5m의 높은 물결이 일겠다. 박소정·양유리 기자

“제주 불태우는 폭주 멈춰라”… 19일 기후정의행진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기후정의의 외치는 행진이 열린다.

2026 제주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4일 제

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고 요구했다.

기후정의행진은 오는 19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진행된다.

조직위는 “하루의 행진으로 기후 재난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기독교의 시각이 당장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안다”며 “기후재난의 시대가 아닌 기후정의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에 연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양유리기자

‘실종 허위종결’ 장씨 유족 “국가배상소송 진행”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서 가진 기자회견서 밝혀
시신 발견된 한림읍 야자수밭 찾아… 출입은 불가

제주 경찰관의 허위종결로 실종 100여 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의 유가족과 변호인이 사건 현장을 찾고 국가배상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오빠와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경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선불리 사건을 종결시키려 하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며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며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가배상청구 소송 계획에 대해서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의 중대한 직무유기로 국민이 피해를 본 사안으로, 국가와 해당 공무원이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2주 간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씨의 오빠는 “5월 첫 신고 때부터 저희 가족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추후 발생할 일들 또한 기다리고 있다”며 “(장씨의 사인)이 잘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경찰에게 요청했으나 현장 보존을 이유로 출입할 수 없었다.

장씨의 오빠는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돌아다니는 의혹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미 A경장이 송치된 사건이고, 재연실험도 마쳤는데 사건과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유족도 출입할 수 없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유리기자

“기본 바로 세워 제주경찰 신뢰 회복”

김병찬 제주경찰청장

취임 첫 지휘부 회의 개최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취임 후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2시 김병찬 청장 주재로 전 과장·담당관과 계장, 3개 경찰서장 및 직할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 진행상황 점검과 더불어 치안 강화 대책이 함께 논의됐다.

김 청장은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근본적 점검·보완 ▷철저한 관제성 범죄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전반의 기본과 원칙 준수 ▷가시적인 종합 치안활동 강화 ▷공직 기강 확립 등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도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 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실종 수사 쉼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또 실종사건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유리기자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
제주도, 오는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등 명절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만들어 파는 업체와 축산물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축산물위생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한다. 또 필요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 부서, 자치경찰단도 함께 참여한다.

제주도는 특히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부적합 원료를 쓰는지 여부, 자가품질검사와 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했는지 여부 원료·생산·판매 관련 거래 서류 적합 관리 여부 등이다. 이상민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 2022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